

“4년 기다린 월드컵 특수 없다”... 자영업자들 ‘울상’

고물가 소비 심리 위축에 대표팀 경기마저 오전 시간대 치킨집 등 인건비·재료값 이어 육계 가격 상승에 ‘한숨’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치킨·주류 자영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4년 만에 개최되는 월드컵인 만큼 ‘되근 후 치킨, 맥주’라는 공식의 특수를 기대했지만 대표팀의 조별리그 3경기가 모두 한 국시간 기준 오전에 열리면서 관련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FIFA 등에 따르면 올해 진행되는 북중미 월드컵의 한국 대표팀 경기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19일 오전 10시, 25일 오

전 10시에 열린다.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경기가 자 정을 전후로 늦은 밤에 시작된 것과 비교 하면 매우 이른 편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월드컵 특수는 이 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두 평일 오전 시간대 경기가 치러지면서 직장인과 학생이 경기 시간에 맞춰 치킨 을 주문하고 맥주를 곁들이는 쉽지 않 아서다.

통상적으로 한국 경기가 저녁이나 밤에

열리면 경기 시작 전 주문이 몰려 일부 매 장에서는 배달 지연이나 주문을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기 당일 매출이 전월 동일 대비 2배 가량 증 가하기도 했다.

또 치킨집 브랜드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월드컵 당일 매출도 전월 대비 1.4배~ 2배씩 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가 오전에 치러지는 만큼 과거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올림픽 경기라 별처럼 때마다 술집에 모여 다 함 께 경기를 시청하면서 신나게 맥주잔을 기울이는 모습도, 삼삼오오 모여 응원하는 광경도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이모씨 (38)는 “최근 손님이 줄어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월드컵이 그래도 희망이었는데 아쉽다”며 “이번 월드컵은 치킨을 시켜 먹 으면서 단체 음원을 하기 좋은 시간대가 아니다. 개업할 때부터 울림파이나 월드컵 을 염두에 두고 큰 스크린을 구비해 둔 건 데 후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월드컵 특수마저 기대하기 어려 운 상황에서 닭고기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기타 재료값 등 각종 비용이 증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만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 르면 국내산 육계 1kg당 가격은 지난 2일 기 준 6676원까지 상승했다. 전년 동일 대비 17%가량 오른 금액이다. 육계 가격은 올 해 2월 중순 6000원을 넘었고, 4월 중순

6772원을 기록한 이후 6500원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 중이다.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에 따른 살처분 영향으로 공급 이 감소한 데다 사료비와 물류비 등 생산 비 부담이 커지면서 닭고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원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이를 상쇄할 만한 소비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월드컵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치킨·주류업계의 대표적인 성수기로 꼽혔지만, 올해는 대표 팀 경기 시간이 모두 평일 오전대로 편성 되면서 특수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업계에서는 월드컵이 여전히 세계

적인 스포츠 이벤트라는 상징성은 유지하 고 있지만, 과거처럼 소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특수 효과’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온라인 콘텐츠 소비 확산 등으로 응원 문화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월드컵 자체 가 소비를 견인하는 대형 이벤트였지만 지금은 소비자 관심이 다양해지고 콘텐츠 소비 방식도 달라졌다”며 “특히 경기 시간 이 소비가 활발한 저녁 시간대가 아닌 만 큼 월드컵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벨기에 ‘국제식품품질평화’서 오비맥주, 우수 미각상 5관왕

오비맥주는 벨기에 ‘국제식품품질평화원 (International Taste Institute, ITI)’이 주최한 ‘2026 국제식품품질평화’에서 출 품한 5개 브랜드가 ‘국제 우수 미각상 (Superior Taste Award)’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국제식품품질 평원은 지난 2005년부터 매해 전 세계 식 음료 제품을 평가해 온 세계적인 식음료 품질 평가 기관이다. 미쉐린 셰프와 소믈 리에로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제품의 첫인상, 외관, 향, 맛, 질감·끝맛 등 총 5 개 항목을 블라인드 테이스팅 방식으로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국제 우수 미각상은 총 70점 이상의 평 균 점수를 얻은 제품에 수여된다. 70점 이 상 80점 미만은 ‘1스타’,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2스타’, 90점 이상은 최고 등급인 ‘3스타’를 받는다.

오비맥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맥주 제조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상 기 업으로 이름을 올리며 K-맥주의 품질 경 쟁력과 위상을 세계시장에 알렸다.

수상 브랜드는 △한맥 (HANMAC) △ 카스 프레시 (Cass Fresh) △카스 라이트 (Cass Light) △카스 울제로 (Cass All Zero) △카스 레몬 스퀴즈 (Cass Lemon Squeeze) 이다.

특히 한맥은 올해 최고 등급인 ‘3스타’ 를 받아 6년 연속 국제우수미각상 수상과 4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을 달성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실무형 AI’ 교육생 30명 모집 스마트인재개발원, 16일 개강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오는 16일 개강하 는 ‘실무형 AI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생 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퍼지컬 AI 전문가 과정, AI Agent 전문가 과정, 헬스케어 AX 전문 가 과정, 도메인 데이터 분석 과정 등 4 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퍼지컬 AI 과정’은 로봇과 센서, 인공 지능 기술을 융합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Agent 과정’은 자율형 서비스 설계와 운영 능력을, ‘헬스케어 AX 과정’ 은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도메인 데이터 분석 과정’은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실무 능력 향 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수당도 지 원된다. 교육은 광주 동구와 남구, 첨단지 구를 비롯해 목포와 순천 등에서 진행된다. 과정별 모집 정원은 30명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패션 상품군 ‘시즌오프’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2026년 봄·여름 패션상품군 브랜드 상품을 시즌 종료 시 까지 할인하는 ‘시즌오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시즌오프 행사는 에트르, 막스마라, 오일밀라, 겐조 등 해외패션 브랜드를 비롯해 여성패션 브랜드 의 띠어리, 클럽모나코, DKNY, 시스템, S.J.S, 오즈세션 등과 남성패션 브랜드의 보스, 시스템옴, 갤럭시 등이 참여하며 브랜드별로 20~30% 할인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숙박갑질’ 차단... 요금인상 노린 취소 2배 배상

BTS 부산 공연 숙박 민원 311건 중 82% ‘예약 취소’

정부, 대체숙박 2000명분 확보... 인근 심야영화 상영

숙박업계가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 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취소된 숙소 요금 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4일 유은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 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불가 특별관리 관 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 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 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12~13일 열리는 방탄소년 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을 계기로 정부 는 숙박업계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 소비자 피 해 배상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숙박 불만 신고는 총 3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정부는 숙박업계가 시기별 숙박 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공 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달 중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숙소비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한다. 공 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 정해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숙 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계약금 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BTS 부산 공연 기간 ‘숙박난’에 대비해 대체 숙박시설과 교통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3일 기준 대 학 기숙사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한 유·무상 대체 숙박시설 약 2000명분을 확보했다. 숙박 수요를 분산 하기 위해 공연장 인근 영화관의 심야 영 화 상영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LH 광주전남본부, ESG 확산 안전문화행사

중대재해 예방 다짐·체험교육

LH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본부 사 옥에서 ESG 경영실천 확산을 위해 ‘2026년 안전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4 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리자 중심의 기존 교육 방식에서 탈피해, 현장 실무자인 근로자 의 안전의식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교 육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LH 임직원과 건설현장 관 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 안전보건경 영방법 안내, 본부장 및 시설물·건설현장 책임자의 책임안전시공 서약, 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문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본부 사옥에서 LH 임직원과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안전문화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근로자 대표가 직접 ‘책임안전시 공 서약서’를 낭독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 을 다짐했다. 이어 건설안전기술사를 초 방해 현장 근로자의 시각에서 실전에 바 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 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LH는 이번 행사와 연계해 올 하반기에 는 담당안전체험교육장을 방문해 응급처 치, 가상안전체험(VR) 등 근로자들이 몸 방해 현장 근로자의 시각에서 실전에 바 로 적용할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계란값 뛰자 대형마트 ‘할인란’ 구매 제한

이마트·롯데마트, 10일까지 ‘1인당 1판’ 판매

계란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대 형마트가 할인 행사 가격으로 공급하 는 계란에 대해 ‘1인당 1판’으로 구매 제한을 걸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국내 주요 대형마트는 오는 10일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풀리 는 계란에 인당 구매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마트(30구·특란·국 산)’, 롯데마트는 ‘행복생생란(30구· 특란·국산)’을 6000원대에 1인 1판 제한으로 판매 중이다. 모두 농림축산 식품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 기 위해 일부 할인을 지원하는 협업 제품이다.

트레이더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구 매 제한이 없으나 점포 재고 상황에 따라 1인 2판 구매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보다 많은 고 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행사 상품에 한해 구매 제한을 두고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국내산 특란 30구의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7472원으로 한 달 전보다 4.1% 올랐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계란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이마트 ‘이 맛란’ 온라인 재고는 일시 품절된 상 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정부가 계란 값 안정을 위해 수입하는 태국산 신선 란 물량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마트는 그동안 국내산 계란만 판매해왔고, 태국산 신선란을 판매하 게 되면 처음으로 수입산 신선란을 판 매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월부터 태 국산과 미국산 계란을 판매한 바 있 고, 롯데슈퍼도 지난해 말 미국산 계란을 판매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정부, 여름철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총력전

중점관리 품목 12개 선정... 수산물 폐사 대응 장비 보급

정부가 여름철 폭염·호우에 따른 농축 수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주요 품목 관 리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 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여름철 폭염· 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채소·과일 작황과 생육 상 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돼지고기·닭 고기·계란 공급도 지난해 수준 이상을 유 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 대응에 나 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농촌진흥 청, 농협, 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과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수급 불안 요 인을 점검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 한다.

특히 배추, 무, 상추, 깻잎, 사과, 배, 복숭아, 수박, 참외,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2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 정해 생육·사육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배추와 무는 출하량 감소 시 정 부 비축 물량을 긴급 공급한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신선란 3123만 개를 수입·공급할 예정이며, 기존

미국·태국산에 더해 브라질산 계란도 처 음 도입해 수입원을 다변화한다. 수입 계란은 30개 기준 5990원에 공급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닭고기는 여름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부화율 종란 1100만개를 우 선 수입하고, 8월 말까지 추가 600만개 를 들여올 계획이다.

또한 가공용 돼지고기와 닭고기, 계란 가공품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외식·가 공 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여름철 폭염(고수온)과 호우 등으로 다량의 양식 수산물 폐사 발생 시 수산물 수급·가격에 상당 압력을 미칠 우 려가 있다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고수 온 대응 장비를 보급한다.

고수온 대응 장비는 보급 예산 규모가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31% 늘었으며, 수산물이 고수온에 폐사 하기 전에 바다로 방류하는 ‘긴급방류 철 차 지침’이 격상돼 이달 중 관련 고시가 제정될 예정이다.

또 수산선전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을 통해 조기불락·넙치·전복 등 고수온 취약 품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비상 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피해 우려 해역에 대한 현장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 획이다.

김은지 기자 eenzy@gwangnam.co.kr